

취 임 인 사

존경하는 강원 소방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 여러분과 함께 강원도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200만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제13대 강원도 소방본부장으로 취임함에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먼저, 각자의 소임을 다함으로써 강원소방을 크게 성장시키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수호자로서 자리매김 하는 데 기여해 오신 소방가족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깊은 경의와 함께 치하를 드립니다.

또한 각 지역에서 헌신적인 봉사를 통해 소방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조명환** 도의용소방대 연합회장님과 **송재원** 여성회장님을 비롯한 9천여 대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소방가족 여러분!

오늘 날 우리는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재해의 대형화와 다양화, 인구 변화 등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여건 등의 시대적인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절박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또한, IT기술을 바탕으로 한 사물 인터넷 시대의 등장과 인공지능 및 로봇 등 과학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세월호사고 이후 우리 국민의 안전의식은 매우 높아졌으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재난안전망이 새로이 설계되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소방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안전지킴이로서의 소방의 역할은 갈수록 커지고 그 위상은 더욱 높아 질 것이며, 그 중심에는 항상 여러분들이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소방가족 여러분!

저는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의 중심에서 현실을 직시하고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사고로 소방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자율과 책임이 조화롭게 운용되는 가운데 조직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여러분과 같이 고민하면서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대안을 강구하는 열린 소방행정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계획되어 왔던 중요한 업무와 정책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부족한 인력·노후한 차량, 협소한 청사·열악한 복지 등 소방인프라 확충에도 적극 노력하여 역동적인 강원소방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강원도 발전에 기여하는 소방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입니다.

소방은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조직입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높은 신뢰는 선·후배 소방관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얻어낸 성과입니다.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는 조직’**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근무한다면 강원소방은 더욱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현장에서는 안전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소방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조직으로서 업무의 특성상 위험한 현장에서 일할 수밖에 없지만 행동 하나하나에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현장에 임한다면 결코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동료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선을 넘나드는 생명의 최전선에서 대원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필요합니다. 직원 상호간의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뜨거운 동료애는 즐거운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소방의 힘을 배가시켜 도민들도 함께 더 안전해 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소방인으로서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최근까지 일어난 주요 재난사례 들을 살펴보면 신종 재난을 포함한 재난유형의 다양화, 피해규모의 대형화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건물은 고층·지하·대형화 되고 자연재난 뿐만 아니라 신종 전염병과 바이러스의 출현, 화학물질 누출사고도 찾아졌습니다.

기존의 화재·구조·구급의 테두리를 벗어나 업무범위도 확장하고 질적인 내실도 더욱 다져야 하는 시점입니다.

더 많은 지식과 기술 습득을 통해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물심양면으로 필요한 지원과 후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배우고 학습하는 분위기 조성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완벽한 동계올림픽 소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2년 뒤 세계인의 축제가 될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소방안전 대책과 안전운영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동계올림픽은 강원소방의 탁월한 역량과 위상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소방의 한류를 전 세계에 전파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안전한 올림픽 개최를 위해 우리 모두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소방가족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들은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결코 해낼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모두의 일치된 마음과 단결된 힘이 필요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 가려면 모두가 함께 가라” 는 말이 있듯이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과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뜨거운 열정과 단합된 힘을 모아 도민의 안전보호와, 강원소방과 도정발전에 전심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시 한번 소방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2월 15일

강원도 소방본부장 이 홍 교